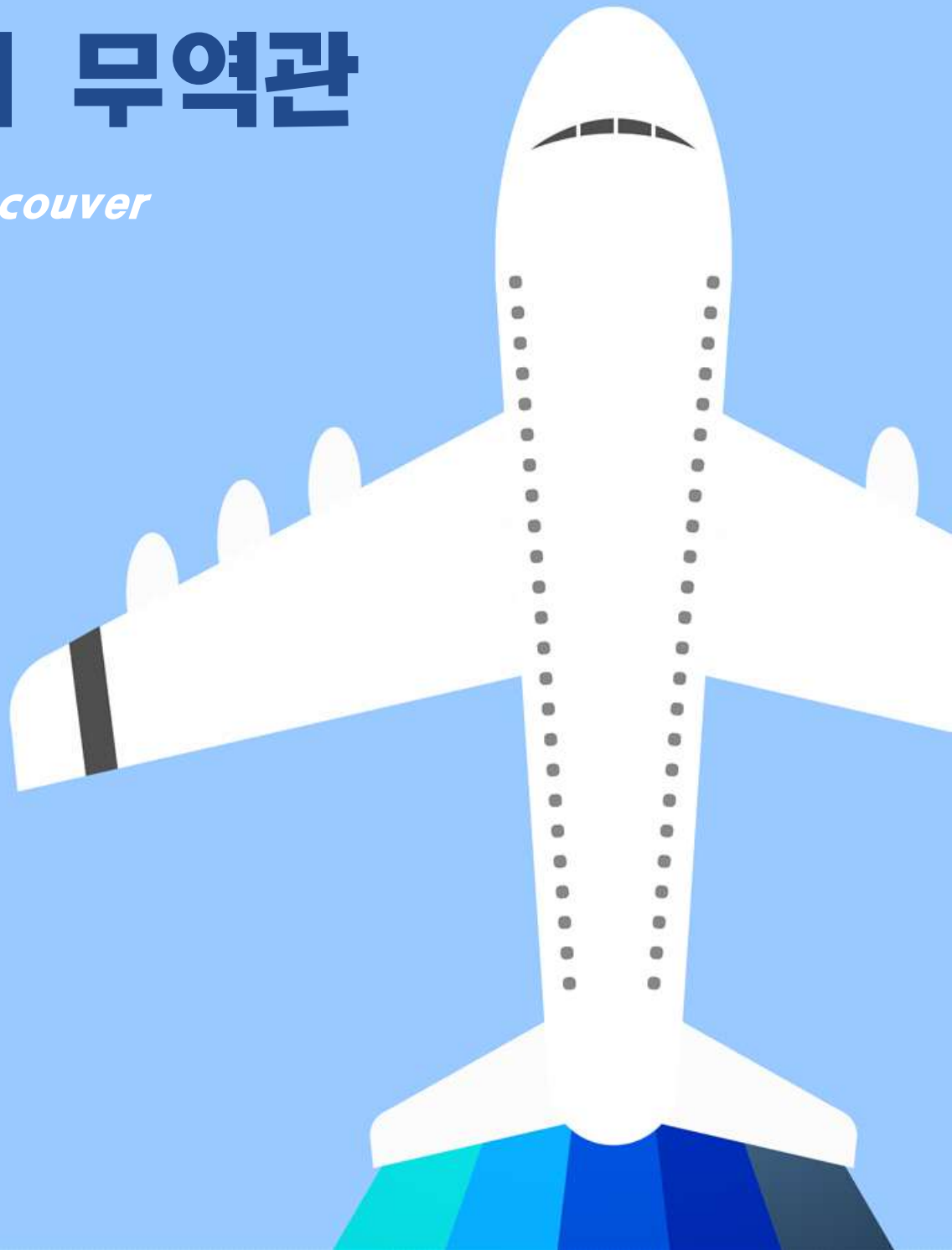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

KOTRA Vancouver



목 차

I. 현지 체류 정보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3
III. 한·캐 교류 현황	9
IV. 캐나다 서부 개황	11
V. 加 서부시장 전망	16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19

I. 현지 체류 정보

1. 현지 기후

밴쿠버 날씨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 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 정도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많음

2. 체류 유의사항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 차림(양복,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음식

-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 분포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료품점(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스낵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매 가능

시차

- 한국 표준시간(KST) -16시간 (서머타임 기간)*
 - 예)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서머타임 기간(2025년) : 3월 9일(일) ~ 11월 2일(일)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Hz)
- 플러그 어댑터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치안

- 밴쿠버 도심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 지역은 슬럼가로 노숙자(Homeless)들이 상주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서비스 구입 시 (BC주 기준) 12% 세금(주정부세 PST 7%, 연방세 GST 5%)이 별도 부과됨
 - 식당 이용 시, 세금 포함된 요금에서 15~20% 수준의 팁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6~8명 이상 단체 손님 이용 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일도 있어 명세서 확인 필요
 - * 참고로 캐나다는 지역(州)별로 부과되는 ‘소비세’ 체계가 다름: BC 12%(PST 7% + GST 5%), 앨버타 5%(GST), 서스캐처원 11%(PST 6% + GST 5%)

□ 현금 사용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비상시를 대비해 현금 지참 필요

3. 주요 연락처

□ 밴쿠버 무역관

- 주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화 : +1-604-683-1820 / 팩스 : +1-604-687-6249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II. 캐나다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 (CANADA)
수 도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 km ² (세계 2위, 한반도 45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인 구	4,162만 명 (2025. 4월 기준)
연방구성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주요지역	온타리오(1,622만 명), 퀘벡(911만 명), BC(572만 명), 앨버타(499만 명), 서스캐처원(125만 명), 매니토바(150만 명), 노바스코샤(108만 명), 뉴브런즈윅(86만 명) 등
언 어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민 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종 교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국 체	입헌군주국 (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 (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2 USD)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Charles III ○ 취임일: 2022.9.8
	○ 총독: Mary Simo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21.7월 (임기 5년+)
	○ 총리: Mark Carney (실권자) ○ 취임일: 2025.03.09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2. 최근 경제 개황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USD	1,990조	2,057조	2,145조	2,515조
1인당 GDP	USD	50,722	56,794	55,320	60,427
실질경제성장률	%	5.0	3.6	1.0	1.5
물가상승률	%	3.4	6.8	3.9	2.4
실업률	%	7.5	5.3	5.8	6.4
대미환율	CAD/USD	0.79	0.77	0.74	0.72
수출	USD	5,039억	5,988억	5,682억	5,688억
수입	USD	4,916억	5,716억	5,586억	5,541억

자료원 : Bank of Canada, Statistics Canada, TD Bank, World Economics(2024년)

□ 2025년 경제 전망 : TD Bank 분석(2025년 3월 기준)

- (경제성장률) 2025년 캐나다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로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GDP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1.4%로 하향 조정
- (실업률) 노동시장이 위축돼 실업률 또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
 - 2025년 3분기 이후 순고용이 감소해 실업률은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력 성장률 둔화가 실업률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소비 및 투자) 하반기 이후 가계 지출과 민간투자 모두 둔화세가 본격화되며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
 - 캐-미 관세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이르면 상반기부터 소비·투자 감소세 전환
- (물가) 加 보복관세 영향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기준금리는 2.00~2.25% 수준까지 인하 가능
- (정부 지출) 연방정부는 경기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전체 GDP의 1% 수준 정도로 추가 재정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FCC(Farm Credit Canada) 등을 통한 금융지원도 병행될 전망

□ 2024년 수출입 현황

- 고금리와 내수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무역수지는 전년비 44.5% 증가
 - (수출) 전년(5,689억 달러)대비 큰 변동 없이 5,688억 달러
 - (수입) 전년(5,587억 달러)대비 0.8% 감소한 5,541억 달러
 - (수지) 교역량 소폭(-0.4%) 감소에도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147억 달러 흑자 기록

<캐나다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U\$백만)

구분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수출	503,900	598,819	568,960	568,881	0.0%
수입	491,652	571,664	558,758	554,135	-0.8%
무역수지	12,248	27,155	10,202	14,746	44.5%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 국가별 현황

-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은 0.7% 소폭 늘고, 수입은 제자리
 - (수출) 주요 수출 증가국은 영국(96.7%), 스위스(28.4%), 한국(8.1%)
 - (수입) 주요 수입 증가국은 한국(20.6%), 프랑스(12.2%), 브라질(9.4%)

<캐나다 10대 수출입 대상국>

(단위: U\$백만)

순 위	수출				수입			
	국가명	2023	2024	증감(%)	국가명	2023	2024	증감(%)
1	미국	441,156	435,634	-1.3%	미국	277,110	274,994	-0.8%
2	중국	22,577	21,781	-3.5%	중국	66,077	64,663	-2.1%
3	영국	10,493	20,638	96.7%	멕시코	34,127	34,542	1.2%
4	일본	11,683	10,929	-6.5%	독일	18,512	17,327	-6.4%
5	멕시코	6,488	6,324	-2.5%	일본	15,300	15,530	1.5%
6	한국	5,140	5,558	8.1%	한국	10,210	12,313	20.6%
7	네덜란드	5,496	5,180	-5.7%	베트남	9,823	10,706	9.0%
8	독일	5,203	4,936	-5.1%	이탈리아	9,548	9,098	-4.7%
9	스위스	3,544	4,552	28.4%	브라질	6,808	7,447	9.4%
10	인도	3,773	3,871	2.6%	프랑스	6,411	7,196	12.2%
	합계	515,610	519,403	0.7%	합계	453,926	453,816	0.0%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개요) 상위 10대 교역 품목 중 (수출) 금, 원유, 의약품, 비행기 (수입) 가스터빈, 의약품, PC, 승용차 등 교역 증가
 - (주요 수출품) 금(30.7%), 의약품(18.6%), 비행기(14.1%), 원유(8.0%)
 - (주요 수입품) 가스터빈(14.9%), 의약품(7.7%), PC(5.6%), 승용차(3.4%)
- (수출) 원유, 광물 등 천연자원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원유(8.0%), 금(30.7%), 알루미늄(4.4%) 등 자원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 확대를 견인
 - 특히 금은 국제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 (수입) 10대 수입 품목 중 5개 품목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 10대 품목 수입은 전년 대비 0.8% 감소
 - 고금리, 내수 둔화, 관세 우려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1	2709	원유	99,432	107,424	8.0	8703	승용차	38,590	39,897	3.4
2	8703	승용차	37,810	31,834	-15.8	8704	화물차	20,589	19,890	-3.4
3	7108	금	21,357	27,914	30.7	8708	자동차부품	20,221	18,748	-7.3
4	2710	정유	14,479	14,952	3.3	2710	정유	17,399	15,605	-10.3
5	8708	자동차부품	13,211	13,158	-0.4	2709	원유	14,563	14,013	-3.8
6	2711	LPG	13,463	9,884	-26.6	8517	전화기	12,691	12,355	-2.6
7	3004	의약품	8,293	9,831	18.6	8471	PC부품	10,034	10,591	5.6
8	8802	비행기	7,616	8,690	14.1	3004	의약품	9,551	10,282	7.7
9	7601	알루미늄	8,081	8,272	2.4	7108	금	9,543	9,592	0.5
10	8411	가스터빈	7,334	7,722	5.3	8411	가스터빈	6,768	7,776	14.9
합계			231,076	239,681	3.7	합계		159,949	158,749	-0.8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4. 캐나다 시장 특성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 지역별 산업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지역	GDP 비중	주요 산업
동부	온타리오, 퀘벡	약 67%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기업 본사 소재
서부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약 33%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광업, 임업, 서비스업 * AB, SK주: 광업, 농식품업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총 교역량의 63% 차지 (수출 77%, 수입 49%)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다른 국가제품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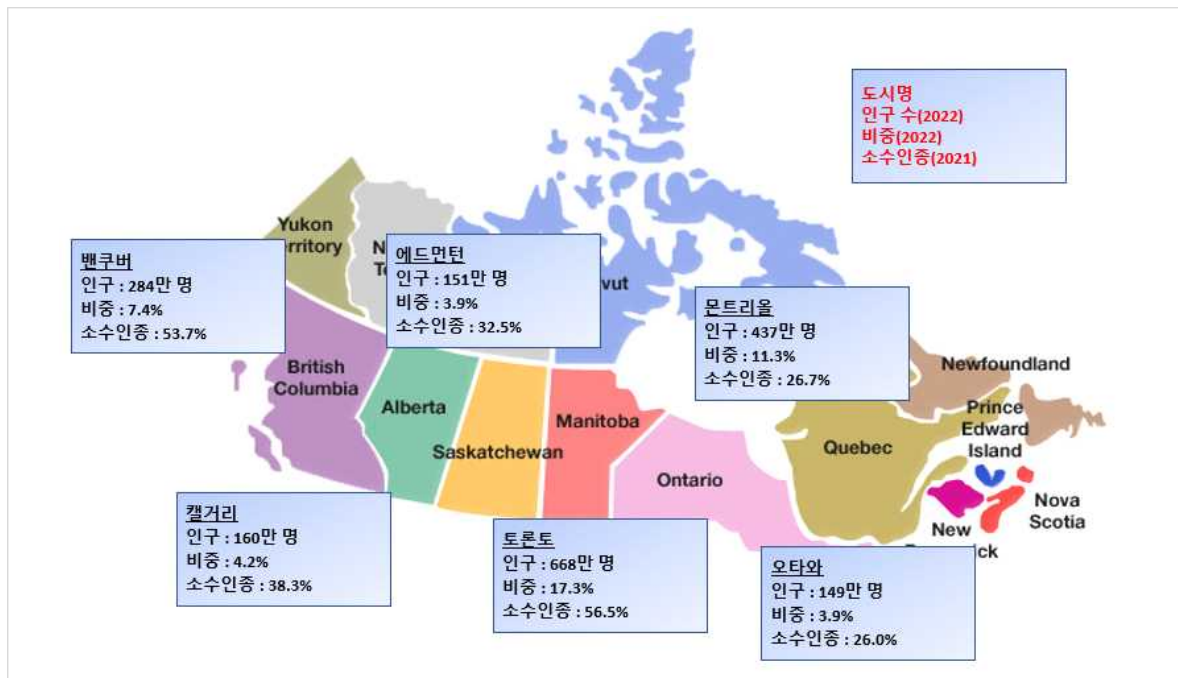
□ 제품별 유통망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품목별로 특화된 유통망이 존재해, 이들 업체에서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을 전문으로 취급
 - 가전: Best Buy, Visions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Aritzia, Lululemon, Zara, Uniqlo, SportsCheck 등
- 최근 시장 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 시도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 아시아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Multi-Culturalism) 사회로 민족마다 특성화된 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소비패턴 또한 다른 특징을 보임
 - 오랜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은 유럽계 이민자의 경우 스포츠, 문화 활동에 대한 소비가 강한 반면, 중국계 이민자는 주택, 자동차 등 고가 소비 트렌드를 보임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들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에서도 신규 이민자 대상의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
 - BC주 식품시장은 아시아계 바이어 비중이 높으며, 특히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밴쿠버 시장에서는 아시아계가 핵심 소비층이자 유통 주체로 자리 매김

<캐나다 주요 6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1년 인구센서스 집계 기준)

□ 가성비 높은 실용적인 제품 선호

- 소비재 제품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고기능성' 제품이라도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제한적
 -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실용성을 갖춘,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 큼
 - 또한 식품의 경우 건강, 친환경 등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를 지닌 제품이 시장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편임

Ⅲ. 2024년 한·캐 교류 현황

1. 한·캐 무역 동향

□ 수출입 개요

- (수출) 전년(84억 3,400만 달러)대비 22.7% 증가한 103억 5,100만 달러
- (수입) 전년(61억 9,400만 달러)대비 15.6% 증가한 68억 5,200만 달러
- (무역) 전년(146억 2,800만 달러)대비 17.6% 증가한 172억 300만 달러
- (수지) 2024년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34억 9,900만 달러 흑자

<한국 대(對) 캐나다 교역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2024
수출	5,464	6,714	7,839	8,434	10,351
수입	4,415	6,370	8,539	6,194	6,852
무역수지	1,049	345	-700	2,240	3,499
총교역액	9,879	13,084	16,378	14,628	17,20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25년)

□ 품목별 수출입

- 2024년 對캐나다 수출은 승용차, 전화기, 정유, 철강 제품이 성장 견인
 -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현지 통신망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화기 수출이 높은 성장세 기록
 - 또한 인프라 건설 투자 수요에 대응해 철강 및 산업 기계류 수출도 큰 폭 증가
 - 원유(12,413%), 우라늄(2,167%), 유연탄(12.0%) 등 에너지 수입 급증

<한국 대(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1	8703	승용차	4,743	5,265	11.0	2701	유연탄	1,774	1,986	12.0	
2	8517	전화기	78	646	729.3	2603	동광	577	701	21.4	
3	2710	정유	80	214	167.5	2601	철광	503	501	-0.2	
4	8708	자동차부품	235	206	-12.4	2711	LPG	370	379	2.4	
5	7210	철강(평판)	139	174	24.7	2844	우라늄	12	283	2,167.2	
6	7216	철강(형강)	96	135	39.9	0203	돼지고기	265	282	6.4	
7	8479	기계류	37	108	190.7	3104	비료	193	194	0.3	
8	8428	리프트	17	106	532.7	4705	목재 펄프	134	120	-10.7	
9	3304	화장품	67	103	54.9	2709	원유	0	107	12,413	
10	8413	펌프	86	103	19.1	0306	해산물	72	102	42.0	
합계			5,578	7,060	26.6	합계			3,900	4,655	19.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25년)

2. 한·캐 투자 동향

□ 캐나다의 對 한국 투자 현황(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4년 신고 금액은 전년比 11.6% 증가한 5.6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比 28.1% 감소

(단위 : U\$백만)

연도	2021	2022	2023	2024
신고금액	502	507	507	566
신고건수	38	27	32	23

- (업종별) 금융/보험, 부동산,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정보통신 순 투자 집중
- 특히 전기/전자(1,879.7%), 운송용 기계(159.2%) 부문 투자가 전년比 크게 성장

(단위 : U\$백만)

구분	2023		2024		전년동기 증감률(%)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융·보험	3	236	4	248	33.3	4.9
부동산	3	120	1	97	-66.7	-19.1
전기·전자	2	4	1	80	-50.0	1879.7
운송용 기계	1	27	1	70	0.0	159.2
정보통신	6	81	1	30	-83.3	-62.9

□ 한국의 對 캐나다 투자 현황(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4년 신고 금액은 전년比 27.1% 증가한 46.2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도 전년比 31.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9건 기록

(단위 : U\$백만)

연도	2021	2022	2023	2024
신고금액	3,417	2,619	3,639	4,625
신고건수	102	109	159	209

- (업종별) 광업, 금융/보험, 제조, 유틸리티, 정보통신 부문 순 투자 집중
- 유틸리티, 광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比 투자 크게 성장, 제조업 투자는 유일하게 감소

(단위 : U\$백만)

구분	2023		2024		전년동기 증감률(%)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광업	10	1,535	5	2,243	-50.0	46.1
금융 및 보험업	51	658	63	1,406	23.5	113.7
제조업	24	1,291	56	652	133.3	-49.5
유틸리티	4	6	4	211	0.0	3416.7
정보통신업	7	7	11	53	57.1	657.1
전문, 과학 및 기술	10	10	10	22	0.0	120.0

IV. 캐나다 서부 개황

1. 지역 현황

□ 개요

- 캐나다 서부 지역 5개 (준)주 위치 ⇨ 하지만 경제·산업은 3개 주에 집중
 - (지리개관)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1,196만 명 정도로 1/4 수준
 - (경제규모) 실질 GDP C\$7,468억(캐나다 전체 GDP의 32.9% 차지)



-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약 7만 1,750명(2021년 인구센서스 집계 기준)
 - (모국어 기준) 영어(732만 명, 71.1%) vs 한국어(8만 865명, 0.8%)
 - (민족/문화 기준) 캐나다인(105만 명, 10.2%) vs 한국인(9만 8천 명, 1.0%)
- <加 서부 3개 州 한인 인구 현황(2021년 인구센서스 통계 기준)>

구분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합계
언어 (모국어*)	영어: 67.1% 한국어: 1.2%	영어: 73.0% 한국어: 0.5%	영어: 81.7% 한국어: 0.2%	영어: 71.1% 한국어: 0.8%
민족 문화	캐나다: 9.3% 한국: 1.5%	캐나다: 11.5% 한국: 0.6%	캐나다: 9.6% 한국: 0.2%	코카서스: 10.2% 한국: 1.0%

* 모국어: 출생 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언어(First Language).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경우 새로이 습득한 Second Language를 모국어로 인정

□ 서부 정치 상황

○ 서부 5개 주 집권당, '5당 5색'

- (집권정당) 신민당(1) + 보수당(1) + 서스캐처원당(1) + 자유당(1) + 무소속(1)
- (정치성향) 진보성향(2) + 보수성향(2) + 무소속(1)

지역	수상		집권당	정치성향	정부형태
BC	David Eby		신민당 (NDP)	진보	다수정부 (Majority)
앨버타	Danielle Smith		보수당 (UC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서스캐처원	Scott Moe		서스캐처원당 (S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유콘	Ranj Pillai		자유당 (Liberal)	중도좌파	소수정부 (Minority)
노스웨스트 준주	R.J. Simpson		무소속 (합의제)	-	-

○ 주요 3개 주 정치 이념 및 특징

- **(BC)** 진보와 보수성향이 공존하는 가운데, 보수당과 진보당이 양립하는 정치 구도 형성. 최근 몇 년간 보수당이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진보당을 바짝 추격하면서, 지지기반 역시 점차 확장하는 추세
- **(앨버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앨버타주는 오랫동안 보수당인 앨버타 진보 보수당(Alberta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고, 현재는 또 다른 보수 정당인 연합보수당(United Conservative Party)이 다수당으로 집권하고 있음. 화석연료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전통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서스캐처원)** 주민 대다수가 보수성향을 지녀 정치적으로도 보수당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지역이며, 2007년 이후 중도우파 성향의 서스캐처원당이 꾸준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 서스캐처원주는 농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루며, 전반적인 경제 개방성도 높은 편

2. 경제 현황

□ 경제지표

- 2024년 서부 3개 주 평균 성장률(1.9%), 전국 평균(1.5%) 상회
 - (성장률) 앨버타(2.4%) > 서스캐처원(2.0%) > BC(1.4%)
 - (무역) 수출(U\$2,070억) > 수입(U\$946억) ⇨ 무역 흑자 지속
- <2024년 캐나다 서부 3개 주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실질 GDP	C\$억	3,131	3,532	805
실질경제성장률	%	1.4	2.4	2.0
실업률	%	5.6	7.1	5.5
무역 규모	U\$억	939	1,623	450
상품 수출	U\$억	406	1,333	331
상품 수입	U\$억	535	292	119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Trade Data Online, TD Bank 보고서(2025년)

□ 산업구조

- 산업별 GDP 기여도: 서비스 68.8% vs 상품 31.2%
 - (서비스) 부동산(C\$1,098억, 14.7%) > 의료(C\$562억, 7.5%) > 전문과학기술(C\$478억, 6.4%)
 - (상품) 광업(C\$921억, 12.3%) > 건설(C\$640억, 8.6%) > 제조(C\$454억, 6.1%)
- 업종별 전년비 성장률은 의료(4.7%), 광업(4.1%), 운송/창고(3.8%), 유틸리티(3.5%)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캐나다 서부 5대 산업 성장 추이(단위: C\$백만)>

#	산업	2021	2022	2023	2024	성장률('23~'24)
1	부동산	102,146	103,250	105,585	109,866	4.1%
2	광업	81,645	86,974	88,982	92,164	3.6%
3	건설	58,908	62,514	62,247	64,036	2.9%
4	의료	49,821	51,310	53,118	56,274	5.9%
5	전문과학기술	41,504	44,915	47,158	47,833	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5년)

3. 무역 현황

□ 수출입 현황

- 총 교역규모는 전년比 1.5% 감소한 3,016억 달러, 1,118억 달러 흑자
 - (수출) 加 서부 지역 수출, 전년比 1.0% 감소한 2,070억 달러
 - (수입) 加 서부 지역 수입, 전년比 2.7% 감소한 946억 달러
- BC주가 3개 주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 앨버타주 흑자 규모 전국 최고
<2024년 加 서부 3개 주 수출입 현황(단위: U\$백만)>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BC	40,571	53,470	-12,899
앨버타	133,289	29,178	104,111
서스캐처원	33,101	11,992	21,109
합계	206,961	94,640	112,321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 품목별 교역현황

-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 수출 전년비 큰 폭 감소, 화물차, 밸브류 수입 증가
 - (수출 감소) 비료(-32.2%), LPG(-29.0%), 유연탄(-21.5%), 밀(-18.0%), 유채유(-14.0%)
 - (수입 증가) 화물차(16.4%), PC/부품(5.5%), 탭/밸브(4.0%)
- <2024년 加 서부 3개 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1	2709	원유	93,918	101,481	8.1	2710	정유	8,799	8,344	-5.2	
2	2711	LPG	12,712	9,020	-29.0	8703	승용차	4,445	4,143	-6.8	
3	2701	유연탄	8,998	7,065	-21.5	8701	트랙터	1,563	1,560	-0.2	
4	3104	비료	8,562	5,804	-32.2	8704	화물자동차	1,147	1,336	16.4	
5	1001	밀	6,896	5,654	-18.0	8431	기계부품	1,158	1,110	-4.2	
6	4407	제재목	4,101	4,071	-0.7	8517	전화기	1,178	1,105	-6.2	
7	1205	유채씨	3,670	3,581	-2.4	8429	불도저	1,412	1,090	-22.8	
8	1514	유채유	3,858	3,319	-14.0	8481	탭/밸브	1,018	1,059	4.0	
9	2603	구리(정광)	2,722	3,222	18.4	8471	PC/부품	904	953	5.5	
10	4703	화학목재펠프	2,864	3,061	6.9	8411	가스터빈	949	879	-7.4	
합계			148,302	146,279	-1.4	합계			22,574	21,579	-4.4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4. 한국과의 교역 관계

□ 수출입 개요

- (수출) 전년(19억 2,600만 달러) 대비 20.4% 증가한 23억 1,800만 달러
- (수입) 전년(33억 3,300만 달러) 대비 7.8% 증가한 35억 9,300만 달러

<한국 대(對) 캐나다 서부 교역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23~'24)
수출	1,545	2,274	1,926	2,318	20.4%
수입	3,046	4,543	3,333	3,593	7.8%
무역수지	-1,501	-2,268	-1,407	-1,274	-9.5%
총교역액	4,591	6,817	5,259	5,911	12.4%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 지역별 수출

- '24년 對 서부 수출은 對 BC주만 전년비 증가, 나머지 2개 주에서는 감소
- 수출액 규모는 BC가 20억 4,9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88.4%) 차지

<한, 대(對) 캐나다 서부 지역별 수출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23~'24)
BC	1,347	1,946	1,625	2,049	26.2%
앨버타	167	254	233	232	-0.4%
서스캐처원	31	74	68	37	-45.6%
합계	1,545	2,274	1,926	2,318	20.4%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 품목별 수출입

- 일부 철강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10대 품목 수출 증가, 돼지고기 수입 급증
-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수요 확대에 따라 한국산 전화기, 철강 제품(평판, 형강) 수출 증가

<한국 대(對) 캐나다 서부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	
1	2710	정유	86	280	224.0	2701	유연탄	1,550	1,652	6.6	
2	7106	은	84	164	95.8	2603	동광	358	593	65.3	
3	7210	철강(평판)	90	137	52.3	2711	LPG	326	315	-3.4	
4	8517	전화기	21	111	440.6	4703	화학목재펄프	97	101	4.1	
5	7216	철강(형강)	57	91	60.2	0202	냉동쇠고기	68	85	24.4	
6	8413	펌프	72	77	8.0	4705	목재 펄프	89	82	-7.4	
7	7208	철강(후판)	67	68	0.6	0203	돼지고기	11	65	466.3	
8	7305	철강(파이프)	111	63	-43.3	7502	니켈	69	62	-9.3	
9	7306	철강(튜브)	89	59	-34.0	4401	목재	41	52	25.1	
10	8451	건조기	35	51	46.1	1001	밀	41	50	24.0	
합계			711	1,101	54.7	합계			2,650	3,056	15.3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5년)

V. 2025 캐나다 서부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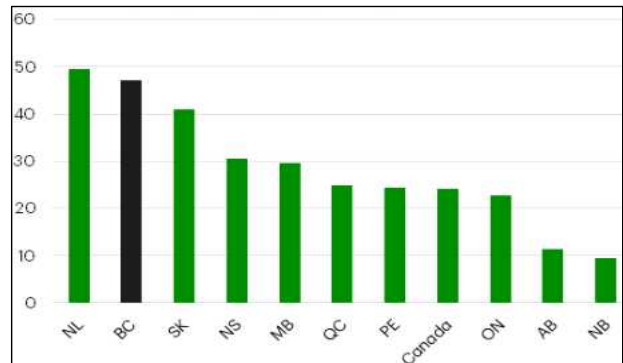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성장률) 실질 GDP 1.7%로 전국 평균 대비 양호한 성장세 유지 전망
 - 경제성장률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지만, 타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기대됨
 -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소비 증가가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
- (가계) 소득 증가,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완화로 점진적 소비심리 개선 전망
 - 美 관세 충격에도 소매 부문 지출은 이자율 하락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특히 식음료 소비 확대 전망
 -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가계 소비 회복 가능

<BC주 소매 매출 추이>



<지역별 對 비(非)미국 교역 비중 현황>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5년)

- (교역) 대미 수출 비중이 명목 GDP의 8%로 낮아 '수출국 다변화율(45%)'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美 관세로 인한 충격이 타지역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목재 산업은 기존 반덤핑·상계관세(15%)에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더해져 타격이 불가피
 - 천연가스 부문은 가격 강세와 LNG 캐나다 프로젝트 가동으로 수출 호조 기대
 - 전반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 보유

<BC주 주요 경제전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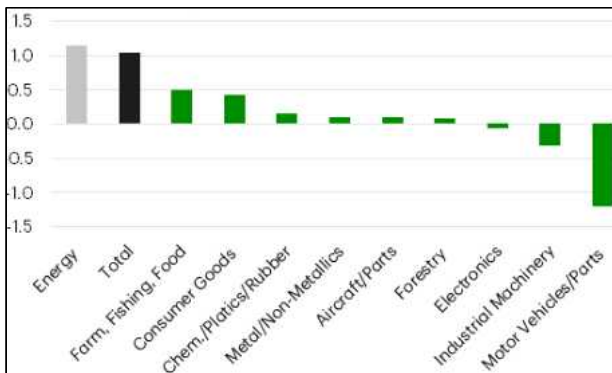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실질 GDP(%)	1.4	1.7	1.5
실업률(%)	5.6	6.2	6.0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5.8	42.1	42.5
주택 거래(%)	2.1	-0.8	14.7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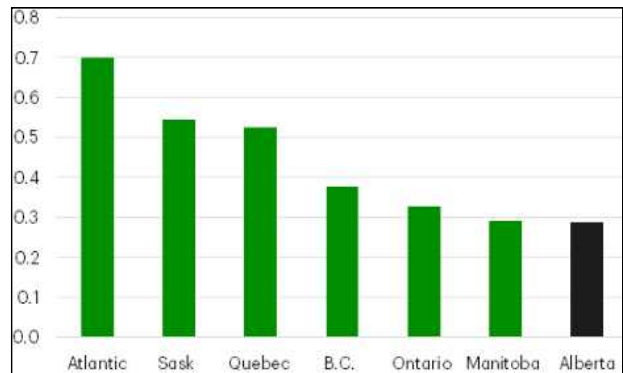
□ 앨버타

- **(성장률)** 전년도 성장모멘텀(2.4%)을 바탕으로 다른 주 대비 양호한 성장률 달성이 기대됨
 -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TMX) 효과로 2024년 지역 원유 생산량이 5% 증가해 400만 배럴/일 기록
 - 에너지 부문 성장세가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2025년 전체 수출 증가 전망
- **(에너지 산업)** 美 관세(10%) 부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를 대체할 마땅한 공급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이 일부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
 - 다만, OPEC 감산 해제와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로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어, 2025년 WTI 가격 전망은 배럴당 67달러로 하향 조정

<2024년 앨버타주 수출 품목별 GDP 기여율>



<2025년 지역별 실업률 변동 포인트 예측>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5년)

- **(고용)** 실업률 6.9%로 전국 평균(6.8%) 수준 유지 전망
 - '25년 앨버타주 인구 증가율은 2%로 예상되며, 이는 고용 창출과 내수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6개월간 물가상승률이 전년비 2.6%를 기록하며 타 주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당분간 가계는 소비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앨버타주 주요 경제전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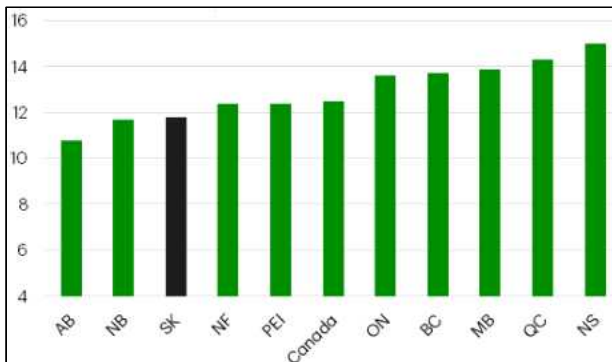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실질 GDP(%)	2.4	1.8	1.4
실업률(%)	7.1	6.9	6.6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7.8	43.9	36.8
주택 거래(%)	9.2	-2.2	7.9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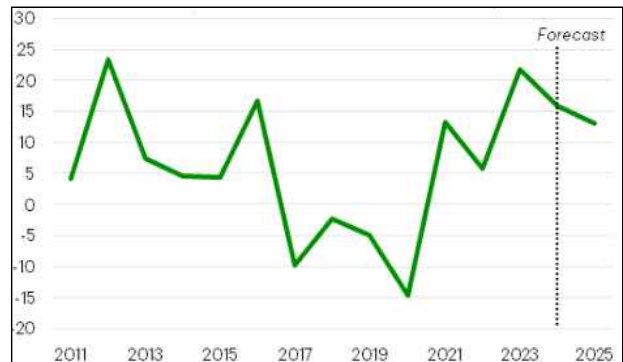
□ 서스캐처원

- **(성장률)**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보였지만, '25년에는 성장세(1.4%)가 둔화해 전국 평균 수준(1.3%)에 머물 전망
 - 국내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 리스크에 취약
 - 따라서 대미 무역 악화가 성장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교역)** 주요 수출 품목인 에너지와 칼륨 비료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0% 美 관세가 적용돼, 수출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전체 칼륨 비료 수입량의 약 75%를 서스캐처원주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공급처 부족으로 인해 수출 유지 가능성 큼
 - 반면, 중국이 2025년 3월 20일부터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10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2024년 지역별 수출품에 대한 美 관세>



<서스캐처원 정부 공공지출 추이>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5년)

- **(우려)** 2025년 추가 생산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원유 산업의 성장 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됨
- **(고용)** '25년 전국 최저 실업률(5.7%) 기록 전망
 - '24년 고용은 2.6%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속 예상
 -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증가 속도는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

<서스캐처원주 주요 경제전망 지표>

구분	2024	2025	2026
실질 GDP(%)	2.0	1.4	1.1
실업률(%)	5.5	5.7	5.7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3	4.1	4.7
주택 거래(%)	8.9	3.5	6.2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5년)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3.20(1존)~C\$6.35(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자료원: TransLink 사이트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75부터 이후 1킬로미터(km)마다 \$2.18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주요 명소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²,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밴쿠버 서쪽에 위치, 스탠리파크 인근의 대표 해변으로 일몰 명소로 유명
- 해수욕, 조깅, 카약 등 다양한 야외 활동 가능
- 매년 여름 'Celebration of Light' 불꽃놀이 대회가 열리는 대표적 축제 장소
- 바다 전망을 갖춘 레스토랑과 호텔이 위치해 있음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밴쿠버 북쪽에 위치한 사계절 관광지로서 겨울 스포츠와 하이킹 명소로 유명
- 곤돌라를 이용한 정상 전망 체험이 가능하며 도심에서 접근성 뛰어남
- 야생동물 보호구역, 우드 체인쇼, 고공 어드벤처 등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다양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BC 최대 규모의 미술관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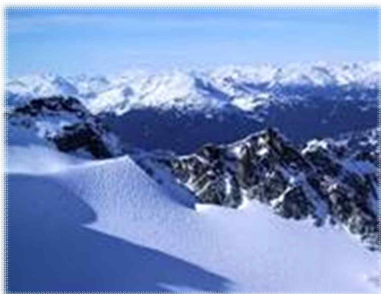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Gassy Jack 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밴쿠버 도심에서 가까운 반도형 문화예술 복합 공간.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 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의 세계적 스키 리조트 지역
- 겨울엔 스키·스노보드, 여름엔 하이킹·자전거 등 사계절 액티비티 가능
- 피크 to 피크 곤돌라로 연결된 위슬러·블랙콤 산의 대형 리조트 단지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에서 차로 약 90분 거리의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
- 천연 광천수를 활용한 온천욕과 리조트 시설이 조성된 관광 명소
- 가족 여행객과 커플에게 인기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소도시형 휴식 공간
- 해리슨 호수와 산책로, 수상 스포츠도 체험 가능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상호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ra Sushi	604.806.6321	1069 Denman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 식료품점

상호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퀴틀람)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킴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주요 여행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